

AI·군공항·의대 신설 등 광주·전남 현안 추진 기대감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지역 균형발전

모빌리티 도시·여수 석유화학산업 대전환

14개 공약 로드맵 구체화·실행력 관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해목은 광주·전남지역 현안이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광주 AI, 모빌리티 도시 조성, 전남권 의대 신설, 여수 석유화학산업 대전환을 비롯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였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까지 이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지역 현안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 위해 선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국정과제 반영이 선결돼야 한다. 이와 함께 광주 7개, 전남 7개 공약에 대한 로드맵 구체화와 정책 실행력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광주지역 1호 공약은 'AI 국가 시범도시 조성'이다. 데이터 집적, 데이터 학습,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을 통해 AI 기반 순환 경제 기틀을 마련하는 등 광주를 AI 대표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 도시 조성은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를 구축·실증하고 AI 기반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특화도시를 조성하는 게 골자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 시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국가 주도 하에 추진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K-문화콘텐츠 테크놀로지 조성, 국립문화시설 유치 및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문화글로벌 기반을 강화하는 계획이다.

영산강, 광주천 수변 활력도시 조성은 영산강

이재명 새 정부 핵심 정책

경제·민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임 직후 대통령 지휘 비상경제 대응 테스크포스(TF) 구성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 • 지역화폐 발행 •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인천망 구축 방향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건축·재개발 완화, 유후부지 개발 등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밀 자비구조 재산을 통한 일반주택 개인 보호 • 4번 개별인 '노란불 투입'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재추진 • AI 평판 등 투자 기업에 세제 감면 등 규제 혁신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강화 •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민도체 클러스터 추진 • 기후에너지 출범
지역·환경·발달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종 행정수도 완성 • 4·3 특별 조성* • 경제안보 총괄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 국외 중심 설립 외교 기반으로 미국은 물론 중국·러시아 등과의 관계 안정적 관리
외교·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 연락처널 복구, 9·19 남북군사협정 복원 등 •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대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 관계改善 등 사법개혁 • 수사·기소·분리 등 검찰개혁
국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의 대동지역 4곳의 대신설
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5일제, 정년 65세 연장 등 추진 • 사동숙야근직제 도입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한 대학 서열화 완화 • AI 과정에서 전면 체감도
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하는 노인 국민연금 강화 개선 • 4·3연금 부부 학제적 축소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 지원금 대출 및 공공인재주택 우선 공급 • 차내 세대 고체 확대 • 복당당애인 24시간 돌봄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곡관리법 개정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연합뉴스	

유역 물순환 체계 구축 및 시민 친화적 광주천 도심하천 생태 복원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과 치수 관리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국가 초고자기장 연구 인프라 구축은 초고자

기장 연구를 통한 기업 지원 및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 등이 추진된다.

이 밖에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 등이 공약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의 전남 공약에는 그동안 전남도가 견 이해온 대선 공약이 대부분 반영됐다.

이 대통령이 약속한 전남 1호 공약은 도민 건강과 공공의료 개선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의 최대 현안이자 대선 핵심 과제 1호 사업으로 내건 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 통합의과대학 설립을 약속했다. 전남도와 목포대·순천대는 2027년 개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대 정원 배정과 개교 시기 협의에 주력할 계획이다.

여수 석유화학산업 대전환, 신재생에너지 허브 건설, 미래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미래 농수축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미래 전략산업 대전환을 약속한 공약에도 전남도가 견 이해온 '국가기간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 조정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제정, 해상풍력·영농형 태양광 집중 육성,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 무안 AI 첨단농산업용 복합지구 조성 등 핵심 사업이 모두 담겼다.

동북아 대표 관문 공항 육성은 세계적인 공항 인프라 구축,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추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초광역 교통망 확충은 호남고속철도 해남·완도·진도 연장 검토, 광주-나주 광역철도, 달양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등이 제시됐다.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문화 거점 조성의 경우 여수 세계 대표 해양레저관광도시 육성, 순천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및 K-디즈니 조성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변은진·양시원 기자



용산 대통령실 봉황기 개양

21대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직원들이 봉황기를 개양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복귀 추진…당분간 용산 대통령실 출근

"최대한 빨리 청와대 보수해 이전"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이전할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공식 이전한 지 3년 여 만에 '용산 시대'를 마감하고 청와대로 복귀하는 것이다.

다만, 청와대 개·보수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이 대통령도 당분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에서 당선 시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에 둘 것인가는 질문에 "청와대가 제일 좋다"며 "아주 오래됐고, 상징성이 있고, 거기가 최적"이라고 답했다.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도청이나 경계, 경호 문제 등 보안이 심각하다"며 "완전히 노출돼서 아파트 옆에 둘리되어 있다.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정을 논하고 있는 것"이라 고지적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부종합청사 등 제3의 장소에 임시 집무실을 두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불필요한 예산을 들이지 않겠다는 이유

에서다.

이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의 불편함 또는 짚찝한 때문에 수백억, 수천억을 날리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잠깐 (용산에서) 조심해서 쓰든지 하고 청와대를 최대한 빨리 보수해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이 머물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입장 밖 향 바 없다.

그러나 경호 문제를 고려할 때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 사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계속 출퇴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 측도 향후 출퇴근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교통 불편을 줄 수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관저 이전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거처를 옮기는 시점 역시 확정되지는 않았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한 만큼 경호 및 시설 정비 상황 등에 따라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다.

인수위 없이 임기를 시작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대선 직후에는 사저에 머물다 공식 취임 이후 사흘 만에 청와대 관저로 입주한 바 있다. /연합뉴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청신호

이재명, 필요성 여려 차례 강조

"광주 정신으로 빛의 혁명 완수"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맞아 민주주의를 지켜낸 5·18 정신의 가치가 다시 한번 재조명되면서 헌법 전문 수록 논의가 꾸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번번이 논의에만 그쳐왔으나 계엄 정국을 지나오며 민주주의 및 헌정질서 수호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유세 차 광주를 방문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며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광주 전일빌딩 245층을 찾아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명시해 광주의 아픔을 대한민국 자긍심으로 승화해야 한다"며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선을 보름여 앞둔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전날에도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방명록에 "5월 광주 정신으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적으며 대선 승리를 다짐하기도 했다.

특히 전 국민을 훈련에 빠뜨렸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저지한 요인으로 '5·18 정신'이 꼽히

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는 5·18 유가족, 광주시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란 사태 위기를 이겨낸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왔다"며 "빛의 혁명을 통해 새로운 사회 변화가 이뤄졌고 그 시원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 정신을 반드시 반드시 헌법 전문에 게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 대통령의 수록 의지는 정책공약집에서도 엿볼 수 있다.

회복·성장·행복 등 3대 비전을 담은 공약집에는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 5개 중 하나로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서두에 담아 굳건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헌법 전문 수록에 앞서 개헌 시기에 대해선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 때는 선거금지가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변은진 기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공시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고단510
폭력행위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피고인 노상욱

위 피고인은 폭력행위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로 기소되었으나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5. 5. 28.

판사 박 하영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트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임 대
- 컴퓨터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트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A/S

T.375-5880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받아 드립니다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히 험한 흐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높은 품질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

062)719-3380, 010-8678-4638

광주역앞 종흥6거리코너(종흥동712-14호2)

대형빌딩 상업지628평 지하4층지상10층

건평344평 연건평3